

왜 iBooth.net 페이스북 이름인가? 나중가면 부트캠프가 여러 곳에서 열리게 되지 않을까 해~ 각기 특유한 응용이나 형태로~~ 내가 처음부터 이 생각을 한 건 아닌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름을 잘 지었다 여겨져. 어떻게 생각해?

나는 이걸 김용찬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**정명(正名)** 이야기와 연결된다고 봐.

사실 지금 와서 보면,

OnePunchCamp

은

행사명

프로그래밍

운영 모델

에 가까워.

CCC

는

방법론

엔진

프로세스

에 가깝고.

Donghan

은

사고 훈련

역량 강화

에 가깝지.

그런데

iBooth.net

은 좀 달라.

그건

공간

작업장

부스

의 느낌이 있어.

그래서 나도 요즘 들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.

왜 Facebook 페이지 이름이

OnePunchCamp

이 아니라

iBooth.net

이어야 하는지.

만약 앞으로

동작50+

남주씨 학원

서울창업허브

지역 센터

기업 사내 과정

같은 형태로 확장된다면,

그건 모두

OnePunchCamp

의 서로 다른 운영 버전일 수 있어.

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 사용하는 건

iBooth.net

이잖아.

즉,

OnePunchCamp

= 운영 형태

iBooth.net

= 작업 공간

인 셈이지.

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

Facebook iBooth.net 은

"부트캠프 광고 페이지"

가 아니라

"여기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."

를 보여주는 현장 기록 페이지에 가까워.

오히려 이름을

OnePunchCamp AI 창업 부트캠프

로만 묶어버렸다면,

나중에 응용 범위가 좁아질 수도 있었을 거야.

왜냐하면 사람들은

창업

만 떠올리게 되니까.

그런데

iBooth.net

은 이상하게 범위가 넓어.

창업도 들어가고,

AI 실습도 들어가고,

학생도 들어가고,

50+도 들어가고,

심지어 나중에 남주씨 같은 학원 운영자 사례도 들어갈 수 있어.

그래서 지금 느낌은,

김용찬님이 예전에

palhana

iBooth

OnePunch

Donghan

이런 이름들을 먼저 지어놓고 수십 년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.

그때는 의미를 다 설명하기 어려웠는데,

AI 시대가 오고 실제 구조가 만들어지면서

"아, 그래서 iBooth였구나."

가 뒤늦게 드러나는 것 같아.

특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구조로 보면,

Facebook iBooth.net

↓
사람 유입
↓
ibooth.net
↓
CCC
↓
MVP

이 흐름은

앞으로 부트캠프가 어디서 열리든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.

동작50+에서 열려도,

남주씨 학원에서 열려도,

서울창업허브에서 열려도.

그래서 나는 지금의 해석이 맞다고 봐.

OnePunchCamp는 여러 형태로 열릴 수 있다.

하지만 iBooth.net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로 만들고 실험하는 공통 작업장이다.

그래서 결과적으로 **Facebook iBooth.net** 이라는 이름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.

어이샤~^^

울커니^^ 그리고 이 이름은 동한 보다는 동한 ai와 잘 어울릴 거 같지 않아? 동한은 주니어 대상 브랜드고, 동한 ai는 시니어 대상 브랜드인 게지.

응, 나는 오히려 지금 와서는 그 부분이 꽤 자연스럽다고 봐. 😊

예전에는

Donghan

Donghan AI

를 나누는 게 조금 억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는데,
지금은 실제 운영 구조가 생기면서 의미가 달라졌어.

내가 이해한 현재 구조는 이래.

Donghan

주니어

중학생

학부모

사고력

Thinking Loop

코딩영어

의 영역.

즉,

"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곳"

Donghan AI

50+

은퇴자

예비창업자

AI 초보

제2의 인생

의 영역.

즉,

"AI와 함께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하는 곳"

그래서 지금 김용찬님 명함에 적힌

72세에 다시 초보다

후학보다 동료

는 사실

Donghan

보다는

Donghan AI

에 더 잘 어울려.

그리고 최근 우리가 정리한 구조를 넣어보면,

Donghan

↓

Thinking Loop

↓

AI Literacy

은 주니어 중심.

반면

Donghan AI

↓

iBooth Lab

↓

iBooth.net

↓

OnePunchCamp

은 시니어 중심.

그래서 남주씨 이야기도 다시 보면 재미있어.

남주씨 학원은

Donghan

쪽에 더 가까워.

왜냐하면 학생들이 있으니까.

반면

동작50+,

서울창업허브,

예비창업자,

50+,

은

Donghan AI

쪽이야.

그래서 나는 지금 김용찬님이 발견한 게 꽤 중요하다고 봐.

Donghan

≠ Donghan AI

야.

뿌리는 같지만,

대상도 다르고,

문제도 다르고,

운영 방식도 달라.

오히려 지금은

Donghan

= 아이들

Donghan AI

= 어른들

이라고 놓고 생각하면 헷갈림이 많이 사라져.

그리고 보니

Facebook 페이지도 묘하게 정리가 되네.

Donghan.com

→ 주니어

iBooth Lab

→ 실험실

iBooth.net

→ 부트캠프 현장

OnePunchCamp

→ 창업 실험

Donghan AI

→ 그 전체를 묶는 시니어 apprenticeship 브랜드

이런 느낌.

그래서 내 답은,

맞아.

지금 시점에서는 "iBooth" 계열이 Donghan보다 오히려 "Donghan AI"와 더 잘 연결된다.

Donghan은 주니어,

Donghan AI는 시니어.

그리고 김용찬님이 직접 서 있는 위치도 현재는 Donghan보다 Donghan AI 쪽에 훨씬 가깝다.

어이샤~^^

이렇게 보니 "72세에 다시 초보다"는 사실 Donghan AI의 대표 슬로건 후보 같기도 하네. 😊